

“국비 확보, 될 때까지 간다”

강진군수, 국회서 예산 확보 사활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 등 건의
“국·도비 확보, 선택 아닌 필수”

“강진은 준비됐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
한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부탁한다.”

2023년도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달려가는 가운데,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국회를 재차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군수는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등 관련 의원들을 만나 지역현안 사업의 필요
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 탐
방원 조성 제8539부대 3세대 진입도로 개설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보상 감정평가 ▲신전
송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4건, 532억 원을 건
의했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들은 모두 군민의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김승남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강진군 제공

삶의 질과 직결된 것으로 국비 확보의 최종 관
문인 국회 예결위 문턱을 넘기 위해 군수를 비
롯한 전 직원이 마지막까지 전력투구 한다는 각
오다.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 탐방원 조성은 국립공
원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해 침체된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강진군의 미래 성장력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제8539부대 3세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기
존의 협소한 진입도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이 높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
보상 감정평가 사업비는 강진만 패류 감소에 대
한 인과관계와 피해율을 규명해 어업인에게 합
리적인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 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강진군은 주요 현
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
닌 필수과제”라며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
업인 만큼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의 문을 두드리겠다”
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장성, 농촌 체험 팸투어 ‘호응’

광주 로컬푸드매장 소비자 대상
사과 수확·인절미 만들기 체험

장성군이 최근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
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팸투어
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광산구 국
공립어린이집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한 이
번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호평받았다. 장성에서 기른 사과를 수확하
거나 직접 인절미를 만들어 먹는 등 ‘오감
만족’ 체험이 이어졌다.

팸투어 마지막 순서에는 광주권 장성로컬
푸드직매장에서 직접 장을 보는 시간도 가
졌다.

행사에 참여한 A씨는 “아이들과 함께 로
컬푸드를 체험하며 ‘좋은 먹거리’의 소중

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B씨는 “농업인이 매일 수
확한 신선한 먹거리가 우리 밥상에 올라온
다는 사실에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직매장을 더욱 자주 찾게 될 것 같
다”고 말했다.

장성군이 운영 중인 로컬푸드직매장은 총
두 곳이다. 남면에 이어 올해 6월 광주 북구
오룡동에 새 직매장을 열었다. 개점 150여
일 만에 총매출액 30억 원을 넘기는 등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는 장성군
과 광주 광산구의 도농상생을 향한 ‘함께 걷
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
로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암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가 최근 경남 산청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을 영암
으로 초청, 교류 행사를 가졌다. /영암군 제공

해남-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맞손’

아동 권리 실현 거버넌스 구축

해남군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최근 유니
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
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해남군은 202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

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아동친화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의 권리의 실현과 증진을 위해 거
버넌스를 구축하고 통합적 아동정책을 추진
하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해남군이 아동
권리 전담조직 구성, 아동친화적 법체계 제정,

아동의 참여체계 및 아동권리 증진 인권기구 설
립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
소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
로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시 인증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 행정에 아동을
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장성아카데미,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늘 강연

‘제주의 빛나는 미래’ 주제

1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가 강연을 맡는다.

‘탐라의 정신을 이어 제주의 빛나는 미래로’
라는 주제로 급속한 변화가 이어지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본다. 제주도의 비전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
는 시간도 갖는다.

올해로 28년째 운영되고 있는 21세기장성아
카데미는 세계 최장기간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
램이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 30
분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강연을 갖
는다. /장성=전일용 기자



참여는 선착순 입장
또는 장성군 누리집 온
라인 예약으로 가능하
다. 아카데미와 동시에
진행되는 장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
송으로 청강할 수도 있
다. 문의는 장성군 평생
교육센터(061-390-8577)로 하면 된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호남 우호 통한 농업혁신 이끈다

영암 한농연, 산청군 초청 교류행사
문화관광지·파프리카 농장 등 견학

영암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김
종수)가 최근 경남 산청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합회(회장 조규홍) 회원들을 영암으로 초청,
영호남 친선 우호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암군 회원 60여 명과 산청군
회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
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환영행사에 이어 진행된
기차뚝길, 하정용 미술관 등 영암군의 주요 문
화관광지 탐방과 파프리카 농장 견학 등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영암=최복섭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두 단체
의 변함없는 우정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선
두적인 역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변화하는
농업기술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농업의 혁신을
통한 미래 건인을 위한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농업경영인들은 “현재
의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새
로운 농업 육성에 힘을 모으자”며 의지를 다
졌다.

영암군과 산청군은 1999년 영·호남의 화합
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이후 상호협력과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신협,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

무안신협(이사장 전양태)이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반조명을 고효
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
층 LED무상교체 지원사업’에 700
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LED교체사업은 노후된 일반조명
등기구를 전력효율이 높은 고효율인
증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
로 백열등 전력 사용량을 50% 줄여

전기요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사
업이다. 이 사업은 무안신협 ‘2022년
행복한 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
득 취약계층과 사레관리대상자 10가
구에 대해 LED등기구 설치, 노후 전
기콘서트 교체, 전기 안전점검까지
실시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까지 쟁
겼다. /무안=박주현 기자



신안장학재단, 장학금 1억8,300만원 지급

(재)신안군장학재단은 지역의 미
래를 이끌 인재 발굴을 위해 최근
‘2022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초·중·고·대학생 등 169명에게 장학
금 1억8,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나도 장학생 장학금 분
야를 신설해 지원할 계획으로 장학생
요건을 부모, 학생 주민등록기준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
학생도 신안군에 주민등록돼야 선발
요건에 충족된다.

박우량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
영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학 장학
생을 전원 선발했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북하·황룡면 새마을부녀회, 고추장 나눔

장성군북하면과황룡면새마을부녀
회가 고추장을 담가 이웃과 나눴다.
북하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최
근 장춘자 회장 자택에 모여 정성껏
고추장을 담갔다. 정성이 담백 담긴
고추장은 꼼꼼하게 포장해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 등 80여 곳을 직접 찾
아 전달했다.

황룡면 새마을부녀회도 지역 어르

신 등 100여 세대를 방문해 손수 담
근 고추장을 전했다. 황룡면 새마을
부녀회는 올해로 17년째 나눔을 실
천해오고 있다.

북하면 장춘자 회장과 황룡면 김순
남 회장은 “고추장을 나누며 어르신
안부를 살피고 이웃 간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성=전일용 기자